

# 「국가」 V권에서 논의된 doxa와 epistēmē

김 인 끈

## ● 목 차 ●

- |                       |                             |
|-----------------------|-----------------------------|
| I. 머리 말               | IV. 실명사와 사물의 불완전한 성격에 관한 문제 |
| II. 경험적 사물은 모순적 존재인가? | V. 손가락의 논증에 관한 해석           |
| III. 경험적 사물은 불완전한 성격  | VI. 맺는 말                    |

### I. 머리 말

「국가」 V권(475A-480A)은 서양 철학사에 있어서 존재 혹은 실재(to on)의 더하고 덜한 정도(degree)를 최초로 언급한 문헌들 중의 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흔히 거론된다. 거기서 플라톤은 앎을 지식(epistēmē)과 의견(doxa)이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별하는데, 지식의 대상(noēta)은 실재하는 것이지만 의견의 대상(doxasta)은 전혀 실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지식의 그것처럼 완전히 실재한다고는 할 수 없는. 따라서 실재성이 덜한 것이라는 말을 한다. 이러한 구별은 또한 같은 「국가」편 내에서, 두 종류의 대상 즉 가지적인 영역(noētos topos)과 가시적인 영역(choratos topos)의 구별로서 특징지어지기도 한다. 여기서 가시적인 영역이란 확실한 앎의 대상 영역으로서 이른바 이데아의 세계를 말하는 것인 한편 가시적인 영역은 불확실한 앎의 영역으로서 경험적 현상 세계를 가리킨다는 데서 이와 같은 구별은 곧 플라톤 철학에 대한 이원론적 통념을 대변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한편 이러한 이원론은 흔히 우리의 상식적인 세계 이해와 충돌하는 것처럼 여겨짐으로 해서 많은 비판을 받아 왔는데, 이데아의 세계에 대한 형이상학적 이론 체계의 모호함도 그렇겠지만, 현상 세계를 실재성이 결여된 불확실한 영역으로 간주한 점은 더우거나 플라톤의 이원론을 비난하는 표적이 되기도 했다. 이를테면, 때때로 플라톤의 이런 구별은 외적인 대상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대상에 대한 우리의 앎에 근거한 순전히 인식상의 구별로 해석되곤 했다는 것이 그 한 예이다. 즉 세계는 비록 그것이 두 가지 구별된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구별은 인지 활동 자체에서의 구별일 뿐이므로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이다. 간명하고도 알기 쉬운 이러한 해석은 우리의 상식적인 이해를 쉽게 구체해 주기는 하나 그로 말미암아 플라톤은 지극히 초보적인 문제를 혼동함으로써 인지 활동 자체에서 구별되는 차이를 인지 활동의 대

상 영역으로 부당하게 이전시켰다는 식의 심한 질책을 받게 된다. 플라톤이 자신의 일관된 생각을 대화편에서 조목조목 짜임새있게 보여 주는 친절을 베푸는데 인색하다는 사실은 그런 종류의 불친절한 대접을 되돌려 받을 소지를 충분히 안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대화체라는 저작의 특성과도 무관하지 않은 그런 불친절에 대한 작자의 의도가 어떻게 간에 우선 저작자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일이 생산적인 비판의 요체인 만큼 해석상의 자의성이나 해석자의 편에서 상식화된 이해의 틀에 은연중에 매이는 일이 없도록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이미 말한 바와 같은 플라톤의 이원론에 대해 새로운 어떤 해석을 직접 제시해 보이는데 주안점을 두지는 않는다. 그런 시도는 플라톤 철학의 핵심을 좌우 하는 것이므로 대화편 전반에 걸친 탐색과 복잡한 작업을 요구한다. 여기서는 단지 하나의 단편적인 작업으로써 중기 대화편에서 문제시되는 플라톤의 그 언급들에 관한 몇가지 해석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한 「국가」V권에서 플라톤이 전개하고 있는 지식과 의견에 관한 일련의 논증을 주목하면 거기서 그는 의견이 지식과 뚜렷하게 구별된다는 것을 논증해 보이기 위해서 지식과 의견을 일종의(인식)능력(dynamis)으로 놓고 능력의 구별은 능력 자체의 작용 혹은 기능(산물)에 따라서 뿐만 아니라 그것이 관계하는 대상에 따라서도 결정된다는 원칙으로부터 지식과 의견은 그 관련 대상이 각각 다르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는데, 이 논증에서 플라톤의 의도는 의견의 대상을 실재하는 것도 또 비실재하는 것도 아닌 그 중간에 속하는 것<sup>1)</sup>이라고 특징짓는 것과 함께 그 근거를 경험적 대상의 성격에서 찾으려는데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의견의 대상이 갖는 성격인데, 즉 경험적 대상은 지식의 대상처럼 언제나 동일한 성질을 갖는 것<sup>2)</sup>이 아니라 항상 대립적인 성질을 함께 갖는다고 말하는 점이다. 플라톤의 말을 직접 옮겨 보자면,

(소크라테스의 물음): “많은 아름다운 것들 중 추한 것으로 보이지(phanēsetai)않을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올바른 것들 중에서 부정하지 않을 어떤 것은? 또 경건한 것들 중에서 경건하지 않을 어떤 것은?”

(글라우콘의 대답) “없지요. 오히려 그것들은 아름답든 아름다우면서도 또한 추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물으신 그밖의 다른 모든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많은 두배인 것들은 어떤가? 그것들이 두배인 것들로 보이는 것 보다는 절반인 것들로 보이는 것이 덜한가?”

“절반인 것들로 보이는는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서 만약 우리가 큰 것들과 작은 것들 그리고 무거운 것들과 가벼운 것들을 말하게 된다면 그런 것들 역시 그와 반대인 것들로 불려지기 보다는 오히려(여전히) 그런 것으로 불리우 켜는가?”

주 1) “…… ei ti phaneīē hoion hama on te kai mē on, to toiouton metaxy keisthai tou eilikrinōs ontos te kai tou pantōs mē ontos, ……” (478d)

2) “…… aei kata tauta hōsautōs echousan, ……” (479a)

“아니요, 오히려 그것들 각각은 언제나 두 가지 명칭을 모두 갖게 될 것입니다.”(「국가」 479a-b)

앞·뒤의 자세한 설명이 생략된 단적인 언명에 가까운 이와 같은 짧막한 문답식의 논의로부터 논자인 플라톤의 기본적인 생각을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일이 이 글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우선은 이런 단편적인 언급이 이에 앞서 일반화시켜 규정해 놓은 의견의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존재론적 내지는 인식론적인 한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알은 수궁하기가 어려운 것 같다. 논의 가운데서 항상 같은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말해지는 지식의 대상을 미리 실재하는 것으로 놓고 있다는<sup>3)</sup> 궁색한 논리적인 이유에서 대립적인 성격을 함께 갖는다는 것이 어째서 한 대상의 실재성의 결여를 뜻하는 것인가라는 직접적인 반문은 접어두더라도 논의의 앞뒤 내용으로 보아 의견의 대상은 경험의 대상 즉 개별적인 사물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것이 비록 대립적인 성격을 함께 갖는다고 하더라도 언제나(aei) 그리고 반드시(anangchē) 대립적 성격을 갖을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의문점은 쉽게 제기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화의 내용상으로 보아 플라톤에게는 이런 의문의 여지를 전혀 엿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여기에 대해 독자의 이해를 이끌어 줄 별다른 단서도 제공되고 있지 않다. 이런 점을 들어 플라톤의 불친절이나 논의의 미숙함을 탓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플라톤 자신에게는 그렇게 여겨질 만한 확실한 이유를 여러 대화편들에서 소개되는 단편적인 언급들로부터나마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또 그러므로써 플라톤을 이해하는데 한 발짝 다가설 수가 있을 것이다.

## II. 경험적 사물은 모순적 존재인가?

경험적인 대상이 ‘아름답기도 하고 추하기도 하다’라든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다’라는 등과 같이 대립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플라톤의 언급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비판적인 글에서 주장되곤 했던 유서깊은 한 가지 해석이 있기는 하다. 그 해석인 즉, 어떤 사물이 ‘아름답기도 하고 추하기도 하다’라는 말에서 사용된 대립적인 두 술어를 서로 모순관계(contradictory)를 뜻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는 곧 그 사물의 모순성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다. 말하자면 플라톤은 경험적 사물들을 ‘동근-사각형’과 같은 모순적인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그가 주장하듯이 그것을 실재하는 것의 서열에 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플라톤이 이러한 사물들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지도 않은데 그것은 그가 파르메니데스적인 사고의 방향을 따르고 있지 않다는 증거로 본다. 즉 플라톤은 파르메니데스처럼 경험적 사물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므로써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갖게 되는 의견(doxa)이라는 것은 전혀 무의미하다고 배제하는 대신에 어떤 방식으로든 경험적 사물들의 존재를 인정함으로써 우리의 의견은 유의미한 것이라는 상식적인 진리를 구제하려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이런 의도에 대해서 보다는 그로 인해 그가 논리적으로 불합리한 대상을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그야말로 어물정한 어떤 것으로 상정하게 되는 이

주 3) “Epistēmē mem ge pou epi tō onti, to on gnōnai hōs echei ;”(478a)

론적인 미숙함을 보였다는 비판으로 귀결된다. 실제로 플라톤이 경험적 사물들을 모순된 것으로 여겼다면 그가 관념론의 노선을 택하고 있지 않은 한 4) 이에 대한 변명의 여지는 없을 것 같다. 사실의 여부는 충분한 전거들의 뒷받침에 따라 좌우됨은 물론이다. 앞에서 인용한 전거만을 놓고 본다면 이런 해석은 꽤 설득력을 가질 수가 있겠지만 이에 대해 의문을 품게하는 전거들을 다른 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 중에는 하나의 사물이 서로 상반되는 두 술어를 갖는다는 사실이, 그 사물의 모순성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일러주는 구절들이 그것이다. 5) 그 한 예로서 「국가」 4 권 436b 이하의 내용을 지적할 수 있다.

“동일한 것이 동일한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동일한 것에 대해서 동시에 상반된 것을 행하거나 겪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네.” 6)

이 구절은 플라톤의 대화편에서 소개되는 일종의 모순-원칙(the principle of non-contradiction)으로 잘 알려져 있는 언명이기도 하다. 플라톤이 거기서 이 원칙을 앞세우는 것은 혼(psychē)이 기능상 세 부분(사유, 기개, 욕망)으로 나누어질 수 있음을 논증하기 위한 것인데 그는 이것을 우선 다른 사물에 적용해 보이고 있다.

“가령 같은 사람이 서 있으면서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고 어떤 사람이 말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되고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은 서 있지만 어떤 부분은 움직이고 있다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 팽이가 뾰족한 중심점을 한 곳에 고정시키고 맴돌 때, 이 팽이는 그 전체가 정지하여 서 있으면서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고 말한다면, …… 우리는 그런 표현을 용인할 수 없을 걸세. 왜냐하면 그것이 정지해 있으면서 움직인다는 것은 동일한 부분에 있어서가 아니기 때문이네. 오히려 우리들은 이것들이 자신 안에 직선의 축과 둘레를 가지고 있어서 직선의 축에 있어서는 그것이 결코 자리를 벗어나는 일이 없으므로 멈추어 서 있지만 둘레에 있어서는 맴돌며 움직인다고 말해야 할 것이네.”

여기서 플라톤이 말하고 있는 바는 분명하다. 즉 하나의 사물이 상반되는 두 술어를 가진다하더라도 그것이 동시에 동일한 것에 대해서 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상반

주 4) 관념론의 노선에서는 그런 견해가 불합리하지 않다. 시간이나 공간 그리고 물리적 대상들을 불충분한 이해로 말미암아 산출된 정신적인 소산으로 간주한다면, 모순을 그런 불충함의 불변적인 증후로서 여길 수가 있기 때문이다. (R. E. Allen, 'The Argument from opposites in Republic V' in Essays in Ancient greek philosophy, ed. by T. P. Anton & G. Kostas Albany, 1972.)

5) 「파르메니데스」의 앞 부분에서 플라톤은 하나의 사물이 하나이면서 여럿일 수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이런 성질들은 같은 사물의 다른 성질에 해당하거나 다른 측면에서 참이되기 때문이라고 한다(29 c~d) 또 「국가」 438b 이하에서는 '큼' '작음' 과 같은 관계 술어들을, 그리고 523b 이하에서는 '무거움' '뽕뽕함' '하나(one)' 등의 술어들에 대해서도 같은 취급을 하고 있다.

6) “Delon hoti tauton tanantia poiein ē paschein kata tauton ge kai pros tauton ouk ethelēsei hama, hōste an pou heuriskōmen en autois tauta gignomena, eisometha hoti ou tauton ēn alla pleiō.”

된 두 술어가 동시에 참이라고 하는 것은 곧 모순을 뜻하는 말이므로 그러한 모순성을 사물에 적용시켜서는 안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앞에서 ‘어떤 사물이 아름답기도 하고 추하기도 하다’ 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 그와 같은 논리적모순을 플라톤이 염두에 두지 않았거나 또는 염두에 두었더라도 그냥 방치해 두었다고 여기는 것이 옳을까? 인용 절의 말 대로라면 오히려 플라톤은 논리적인 모순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또한 것처럼 언어 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순을 사물이나 사태의 성격과 동일시하지는 않았다고 보는 편이 옳은 것 같다. 오히려 플라톤은 그런 대립적인 성격은 모순이 아닌 ‘불완전한’(incomplete) 성격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을 사물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말하자면 모순인 것처럼 보이는 술어들의 관계는 그것들의 어떤 사물에 적용됨에 있어서 가정되거나 또는 숨겨져 있던 지시 대상이 명시화됨으로써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인데 따라서 그것은 모순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 해서 불완전한 것이었을 뿐임을 뜻한다.) 그러므로 이런 생각에 따르자면 앞서 ‘어떤 것이 경건하기도 하고 불경하기도 하다’는 말은 그 사물의 모순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그것이 불완전한 성격을 갖는 이유 뿐 아니라 언제나 그리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데 있다. 어떤 것이 ‘올바르기도 하고 옳지않기도 한’ 불완전성을 나타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도 언제나 그럴 뿐아니라 반드시, 그것은 사물 자체의 불완전성인가? 아니면 인식상의 불완전성인가, 또는 언어의 불완전성(논리적 성격)인가? 여기에 대해서 앞의 인용문은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지 않을 뿐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플라톤 자신이 주제적으로 논구하고 있는 것 또한 아니므로 논의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단편적인 언급으로부터 접근할 수 밖에 없다.

### Ⅲ. 경험적 사물의 불완전한 성격

사물의 대립적 성격에 관한 유사한 논의가 「심포지움」211a에서 소개되는 데, 그 중의 한 대목에서 논의의 단초를 이끌어 내 보는 것이 좋겠다. 플라톤은 거기서 美를 추구하는 사람이 오름길의 정상에서 보게 되는 경이로운 아름다움의 본성을 이렇게 말한다.

“그것은 언제나 존재하며 생성하거나 소멸하지도 않고 자라거나 시들어 버리지도 않을 뿐아니라, 어떤 점에서는 아름답고 어떤 점에서는 추한 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아름답다가 어떤 때는 아름답지 않은 것도 아니며, 어떤 것에 비하여 아름답고 어떤 것에 비하면 추한 것도 아니며, 어떤 사람에게는 아름답고 어떤 사람에게에는 추하다거나 여기서는 아름답다가 거기서는 추한 그런 것이 아니네”<sup>8)</sup>

주 7) J.A.Brentlinger, *Particulars in Plato's Middle Dialogues*, 1972, 117-119면 참조.

8) “…… prōton men aei on kai oute gignomenon oute apollymenon, oute auxanomenon oute phthinon, epeita ou tē men kalon, tē de aischron, oude tote men, tote de ou, oude pros men to kalon, pros de aischron, oud'entha men kalon, entha de aischron, hōs tisi men on kalon, tisi de aischron.”

여기서 플라톤이 언급하고 있는 아름다움 자체의 성격으로부터 그와 대비된 아름다운 사물이 불완전한 성격을 나타내는 사정은 요약해서 1) 관점 혹은 부분(部分)적인 차이 2) 시간에 따른 변화 3) 다른 것과의 관계 4) 관찰자의 조건 및 장소에 따른 변화 이렇게 네가지로 말할 수 있겠는데, 이때 1)과 2) 4)는 대체로 사물자체의 불완전한 성격과 인식상의 불완전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대별해서 생각할 수 있는 반면에 3)의 경우에 관해서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3)의 경우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예는 ‘미인으로 뽑힌 소녀는 다른 소녀들 보다는 아름답지만 미의 여신에 비해서는 추하다’와 같은 종류의 말에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미인인 소녀가 아름답기도 하고 추하기도 한 것은 대상 자체의 불완전한 성격 때문일 수도 있겠고, 또 관찰자의 인식상의 불완전함 때문이라고 보는 것도 그럴법하기는 하나 사정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않다. ‘정의롭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다’라든가 ‘경건하기도 하고 불경하기도 하다’와 같은 미적인 술어나 도덕적인 술어들의 경우는 판단자의 인식에 따른 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합당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같은 사정의 예로서 ‘심미아스는 소크라테스보다 크지만 파이돈 보다는 작다’<sup>9)</sup> 라는 말로부터 ‘심미아스가 크기도 하고 작기도한’ 이유가 관찰자의 판단에 따른 차이로 볼 수가 있을까? 그 보다는 먼저 우리는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다’라든가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다’ 또는 ‘두배이기도 하고 절반이기도 하다’라는 등의 관계를 나타내는 술어들(relative-term)은 실명사(substantive term)를 나타내는 술어나 속성을 나타내는 술어(attributive term)와는 달리 언제나 한 쌍의 관계 항을 필요로하기 때문에 관찰자의 인식상의 불완전함에 관계 없이 표현하기에 따라서 어느 사물에서나 항상 대립적인 성격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에 생각이 미칠 수 있다. 즉 관계 술어들은 술어 자체의 논리적인 성격상 다른 술어들과는 달라서 사물에 대해서 다른 술어들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언제나 불완전한 성격을 나타내게 된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 주목할 때 3)의 경우를 관계 술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면 불완전한 성격을 갖는 이유는 분명해지는 것 같다. 그래서 대립적 성격에 관한 논증에서 의견의 대상인 경험적 사물이 불완전한 성격을 나타내는 이유를 사물 자체의 성격과 인식상의 불완전성 그리고 술어의 논리적 성격의 세 가지 측면에서 일단 논의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이상과 같은 근거에서 경험적 사물이 대립적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때 그러한 근거가 의견의 대상인 경험적 사물에 대한 실재성의 결여를 한정한다고 여겨야 할 까닭은 무엇인가? 우선 사물 자체의 불완전한 성격이 그것에 대한 실재성의 결여를 한정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항상 그 자체로서 동일하게 있는 것’이 실재하는 것으로서 이미 전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인식상의 불완전성이나 관계 술어의 논리적 성격을 이유로 드는 것이 어떤가? 사물이 나타내는 불완전성이 인식상의 불완전성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플라톤은 지식과 의견의 구분에서 인식 능력에 따른 구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sup>10)</sup> 그러나 대상의 실재성이 그것에 따라 좌우된다고 말하고 있는 곳은 없다. 한편 관계

주9) 「파이돈」 102b.

10) “…… 나는 능력에 대해서 이런 점만을 즉 그것이 관계하는 대상과 해내는 일(eph'hō te esti kai ho apergayetai)만을 주목할 뿐이며, 이 점에서 나는 각각의 능력을 별개의 능

술어의 논리적 성격은 인식상의 불완전성과는 무관한 언어 자체의 성격이므로 역시 대상의 실재성과도 무관하다고 말해야 하겠지만 플라톤에게는 유명론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사정은 좀 달라진다. 즉 비교 혹은 관계를 뜻하는 술어들의 내포와 외연 간에 논리적인 구별이 있는 한편, 플라톤이 중기 대화편에서 특징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바로서, 한 술어의 의미는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이라는 기본적인 생각<sup>11)</sup>과 함께 그런 구별은 존재론적인 구별이 된다. 따라서 관계 술어의 논리적 성격으로 보자면 다른 술어들의 경우처럼 불완전한 성격이 어떤 대상이나 대상의 성질 혹은 사태를 고정적으로 지시함으로써 채워지는 것과는 달리 그 불완전함이 관계항에 의해서 채워지기는 하지만 그것은 고정적으로 지시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므로 존재론적인 가정상 관계 술어의 고정된 지시 대상은 이데아일 수밖에 없는 한편, 모든 사물은 그것의 불완전한 지시체로서 실재성이 결여된 것이라는 말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때 플라톤에게 있어서는 사물이 관계 술어의 고정된 지시 대상이 되지 못하는 이유를 술어 자체의 성격으로 돌릴 수도 있다. 플라톤의 언급에는 두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모두 있기 때문이다.<sup>12)</sup> 사실상 플라톤 자신의 직접적인 설명이 부연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대상 자체의 성격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술어 자체의 성격으로 이해함이 더욱 적절해 보일 지도 모른다. 그래서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관계 술어는 다른 술어들과 구별되어야 하며 불완전한 성격의 근거 역시 구별된다. 그러나 그럴 경우 플라톤이 지식과 의견의 구획 기준으로서 이 두가지 종류의 불완전한 성격을 모두 인정했다고 생각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다. 그것은 관계 술어의 논리적 성격에 의한 불완전성은 경험적 사물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플라톤이 지식의 영역에 포함시키는 대상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점 때문이다.<sup>13)</sup> 이 점을 감안한다면 플라톤이 지식과 의견의 영역을 구획짓는 논증에 (3)과 같은 종류의 논거를 사용한다는 것은 부당한 誤用이 된다. 그리고 보면 관계 술어의 일반적인 용법에 익숙한 우리들에게는 ‘심미아스는 소크라테스 보다 크지만 파이돈 보다는 작다’라는 표현을 ‘심미아스는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다’라는 말로 바꾸어 사물의 불완전한 성격을 드러내는 플라톤의 논조가 첫 눈에 낯설고 이상스럽게 여겨지는 것이 무리는 아

— 력으로 부르네, 그리고 동일한 대상에(epi tō autō) 관계하며 동일한 일을 해내는 것을 동일한 능력으로 부르되, 다른 대상에 관계하며 다른 일을 해내는 것은 다른 능력으로 부르네.” (「국가」477d)

주 11) 단적인 예로서, “..... 만일 이 감각이 같은 사물을 부드럽다고도 전달한다면 딱딱함이란 도대체 무엇을 지시하는 지(ti pote sēmainei hautē hē aisthēsis to sklērōn) 혼은 당황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국가」524a)

12) 플라톤의 말을 참조해 보면 “키가 큰 사람이 작은 사람 옆에서 있는 것을 볼 때 그 사람이 옆에 선 사람 보다 큰 것은 머리에 의해서(autē tē kephalē)이다.” (「파이돈」101a) 여기서 ‘머리’는 큼을 지시해 주는 대상이 된다. 그런데 머리라는 것은 큰 사람에게도 있고 작은 사람에게도 있는 것 이어서 작은 사람 편에서 보면 머리는 작음을 또한 지시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결국 머리는 큼과 작음 어느쪽도 고정적으로 지시해 주는 대상이 되지 못한다.

13) 數나 量의인 속성들도 관계 혹은 ‘pros ti’의 부류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데아가 이런 종류의 어떤 속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J.A.Brentlinger, 같은 논문 121면. G.Vlastos 는 이점을 들어 플라톤이 관계 술어를 논증에 사용하고 있음을 통박한다. G.Vlastos, Degree of Reality in Plato, in New Essays on Plato and Aristotle, ed by Renford Bambrough, 1965, 14-17 면.

니다. 하지만 플라톤이 앞서 인용한 대목에서 뿐 아니라 그런 종류의 논의에서 미적 술어나 도덕적 술어들과 더불어 관계 술어들을 즐겨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못된 논거라는 단순한 비판으로 지나쳐 버리기에는 어떤 의도를 의심케 하는 점이 있는 것 같다. 플라톤이 관계 술어의 용법과 다른 술어들의 용법을 분간하지 못하고 혼동하여 썼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14) 충실한 해석을 위해서는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논의를 간단히 요약해 보자면 대립적 성격에 관한 논증에서 플라톤이 말하고 있는 지식과 의견의 구획 기준은 대상의 불완전한 성격에서 찾는다고 할 때 관계 술어와 관련된 불확실한 성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에 놓이게 되었는데, 그것을 술어의 논리적 성격으로 여긴다면 간명해 지기는 하나 지식과 의견의 구획 근거로서의 적합성이 문제시되며, 그렇지 않고 대상의 불완전한 성격에 귀속시키기에는 부연 설명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논의 과정에서 검토하지 못한 문제와 함께 한가지 설득력있는 해석이 있을 수 있다. 지식과 의견의 구획을 위한 논증에서 플라톤이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물 자체가 모든 술어들과 관련하여 언제나 그리고 반드시 불완전한 성격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는지는 의문인 한편, 관계 술어의 경우는 논리적 성격상 반드시 그럴 수 밖에 없다는 점으로부터 플라톤의 논증을 비교나 관계를 나타내는 술어들에 한하여 유효하다고 보는 해석이 그것이다. 15) 중기 대화편에서 볼 수 있는 사물의 대립적 성격에 관한 논의에서 미적 술어와 도덕적 술어 그리고 관계 술어들이 거의 사용되고 있다는 점 등 몇가지 그럴법한 이유 뿐아니라 이를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보이는 강력한 증거 때문에 더욱 주목할 만한 해석으로 생각되는데 이제 이 해석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립적 성격에 관한 논증에 함축된 플라톤의 기본 입장에 접근해 보도록 하자.

#### IV. 실명사와 사물의 불완전한 성격에 관한 문제

앞에서 플라톤이 지식과 의견의 구별 근거로서 제시한 사물의 대립적 성격에 관한 논증은 비교 및 관계 술어들에 한정된다는 해석을 지지하는 중요한 문제로서, 모든 술어와 관련하여 사물 자체가 언제나 그리고 반드시 불완전한 성격을 갖는 것인가의 의문은 이를테면 실명사에 해당하는 술어 사람, 의자, 나무 등의 관련 사물들이 대립적인 성격인 非人間, 非椅子, 非木 등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서 더욱 극명해진다. 그렇다고 대답하기에는 상식적인 이해를 넘어서는 것 같다. 그렇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 플라톤의 논증은 이런 술어들에 대해서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해석은 옳다. 따라서 그런 사물들을 실재의 낮은 서열에 놓아야 하는 당혹감이나 또 동시에 그것들의 실재인 이데아를 별도로 가정하는 기이함을 갖지 않아도 될 것이다. 만약 경험적 사물이 모든 술어에 대해서 항상 불완전한 성격을 갖는다고 한다면 플라톤의 주장에 따라 경험의 세계는 덜 실재하는 의견(doxa)의 세계요 모상(eidōlon)에 불과한 것인 한편 참인 실재의 세계 즉 이데아의 세계를 또

주 14) 「국가」IV 438b 이하 참조.

15) R.E.Allen 같은논문, J. Annas, An Introduction to Plato's Republic, Oxford, 1981, 190-271 면.



하나 상정해야 하겠으나, 실명사와 같이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고정적인 지시물을 의미체로서, 갖는 술어들은 대립적인 성격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또 플라톤이 같은 방식의 논증을 통해서 그런 것을 입증하고 있지도 않는 상황이므로 술어의 성격상 고정적인 지시물을 갖지 않는 올바름, 큼, 아름다움 등과 같은 술어들에만 이데아를 상정했다고 봄으로써 두 세계(two world)를 가정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론적으로 모호할 뿐 아니라 신비스럽다고까지 할 그런 이설을 플라톤에게 귀착시킬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매우 고무적이기조차하다. 또한 플라톤이 실제로 증기 대화편에서 대립적 성격에 관한 논증뿐 아니라 그가 문제 삼고 있는 논의의 주제들이 미적 도덕적 술어들에 한정되고 있다는 점은 그의 스승인 소크라테스의 관심사였던 도덕적 개념들에 정의를 내리는 작업과 같은 맥락에서 볼 때 그런 해석에 대한 심증적 확신을 주는 것이기도 하다.

해석의 충실함은 저작자의 생각을 해석자의 편에서 일관성이나 수궁의 여지를 모색하는데 있기 이전에 있는 그대로를 드러 내는데 있다는 상식에 가까운(그러면서도 상식 이상의 문제를 실행상으로 안고 있는) 말을 서두로 삼고 이 해석에 대한 비판적 논구를 시작하자면,

먼저 플라톤이 대화편 내에서 대립적 성격에 관한 논증과 같은 방식으로 실명사에 관한 지식과 의견의 구획을 논하는 곳은 찾을 수 없지만 일정한 주제의 논의를 위해서 실명사에 관한 이데아를 명시적으로 상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sup>16)</sup> 또 비유나 간접적인 표현을 통해 경험의 세계와 이데아의 세계를 의견과 지식의 대상 영역으로 분할하고 있는 대목도<sup>17)</sup> 있다. 앞의 해석은 이런 전거들을 존재론적인 요구가 아닌 논의에 따르는 단순한 방법적인 가정으로 넘겨버리거나, 또는 비유적 표현 이상으로 취급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이데아의 설정이 갖는 방법론적인 성격은 증기 대화편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적인 특징인 것은 사실이지만 만 그것이 곧 존재론적인 요청을 결하는 것이라는 단정을 내릴 근거는 없다.<sup>18)</sup> 또 플라톤이

주 16) 「국가」X 596b에서 ‘침대’와 ‘탁자’의 이데아를, 「파이톤」103d-106d에서는 ‘영혼’ ‘눈’ (雪) ‘불’ (火) 등의 이데아를 「메논」72C에서 ‘벌’(bee)의 이데아를 「크라틸로스」389b에서는 ‘베를북’의 이데아를 언급하고 있다.

17) 「국가」VII, VII, 503 c-516 c에서 소개되는 ‘해’ ‘선분’ ‘둥굴’의 비유는 경험 세계의 모든 개물들을 의견(doxa)의 대상으로 묘사하고 있다.

18) 「파이톤」에서는 영혼의 불멸을 증명하기 위해서, 「국가」IV 476e에서는 철학자와 비철학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국가」X 596a에서는 모방(mimēsis)이 무엇인가를 알아 보기 위해서 각각 이데아가 가정된다. 플라톤이 논의에 앞서서 ‘아름다움’이나 ‘좋은’ 등의 이데아가 있다고 ‘놓는다’(tithentes)는 말을 하는 것은 일종의 방법적인 가정을 뜻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탐구 방법의 성격과 관련된 문제로서 이를테면 「파이톤」99d-100a에서 플라톤은 사물 탐구를 위해 차선의 방법을 택하게 된 경위와 함께 자신의 로고스(logos)에 의한 탐구 방법을 제안한다. 여기서 플라톤은 육안으로(tois ommasi)사물을 바라 보거나 감각(aisthēsis)에 의해서 파악하는 대신 로고스들(에로(eis tous logous) 피해 들어가서 거기에서 존재하는 것들의 진리(tōn ontōn tēn alētheia)를 고찰할 필요가 있었노라고 하면서, 그러나 존재하는 것들을 로고스에 의해서 고찰하는 사람이 사실에 있어서(en ergois) 고찰하는 사람보다 더 모상 가운데서(en eikosi) 고찰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말한다. 여기서 플라톤이 말하는 로고스에 의한 존재(to on) 탐구의 방식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논의를 필요하는 문제이겠지만, 그런 탐구 방식이 경험적인 탐구 보다 양 편이 모두 모상에서 탐구한다는 점에서는 더 열등하지 않다는 말은 ‘ta onta’가 존재하는 것들 일반(사물들)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논의 가운데서 즐겨 쓰는 비유적 표현에 대해서 지나친 의미를 캐려하는 것은 물론 경계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가볍게 넘겨버릴 일도 아니다. 플라톤은 종종 중요한 대목에서 비유를 쓴다든가 유보적인 언질을 붙여 뉘그러우면서 우리가 당황하게 되는 것도 그런 이유 중의 하나다. 나아가서 중기 대화편의 주종을 이루는 논의의 주제와 그것을 대표하는 술어들의 한정된 종류는 플라톤의 관심사를 반영한다는 점은 수긍할 수 있겠으나 그것이 '큼'이나 '작음' '두배'나 '절반' 등의 관계 술어가 적잖게 등장하는 배경으로서의 설득력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해석의 견고한 초석은 텍스트 상의 전거에 있으니 만큼 이런 해석의 강력한 전거로서 거론되는<sup>19)</sup> 대목을 직접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좋겠다.

### V. 손가락의 논증에 관한 해석

「국가」Ⅶ 523a-524d에서 플라톤이 손가락의 예를 들어 대립적 성격에 관한 논증을 하게 되는 것은 장차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사람들이 知的인 삶을 살도록 지도함에 있어서 혼의 시선을 생성 소멸하는 세계로부터 참된 존재의 세계로 향하도록 하는데 유용한 학과를 선별하는 지침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그것은 학과의 학습 과정에서 사유(noēsis)를 활용하게 되는 계기가 주어지느냐 아니냐에 기준을 두는 선별로서 그 예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 1) 감각들에는 감각에 의해서 충분히 식별되기 때문에(hōs hikanōs hypo tēs aisthēsēōs krinomena) 고찰을 위해서 사유를 불러 들이지 않는 경우와
- 2) 감각이 전혀 건전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전적으로 사유를 불러 들여 고찰하는 경우가 있다.
- 3) 사유를 불러 들이지 않는 경우는 동시에 반대되는 감각으로 바뀌지 않는 경우이고 (ta men ou parakalounta, hosa mē ekbainei eis enantia aisthēsīn hama)
- 4) 사유를 불러 들이는 경우는 반대되는 감각으로 바뀌는 경우인데 그것은 거리가 가깝거나 멀거나 간에, 감각이 이것과 이에 반대되는 것 중 어느 것을 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때에 그렇다.
- 5) 가령 새끼 손가락과 그 다음 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을 두고 볼 때 그 각각의 손가락들은 그것이 가운데서 보여지건(horatai) 끝에서 보여 지건, 희든 굵든 가늘든 등등에 상관 없이 똑 같이 손가락으로 나타난다(phainetai)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 6)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혼(tōn pollōn hē psychē)은 도대체 손가락이란 무엇인가라고 사유에 물음을 요청하도록 강요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시각(opsis)은 어

주 19) R. E. Allen 같은 논문 168면.

J. Annas, 같은 책, 218-220면.

H. Irwin, Plato's Heracleiteanism, in the Philosophical Quarterly, 1977, 6면.

디에서도 혼에게 그것이 손가락과 반대되는 것이라고 함께 표시해 주지(hama esēmēnen) 않기 때문이다.

- 7) 그런데 손가락의 크고 작음의 경우는 어떤가? 시각은 손가락의 크고 작음을 그것들 중 어떤 것이 가운데 있거나 끝에 있거나 차이 없이 충분히 보는가? 촉각(haphē)도 굵고 가늘 부드럽고 딱딱함에 대해서 그와 마찬가지로인가? 그리고 다른 감각들(hai allai aisthēseis)도 그와 같은 것들을 부족함 없이 드러내 보이는가?
- 8) 아니면 그것들은 제각기 이렇게 작용하는 것인가? 즉 먼저 딱딱한 것 위에 놓여졌던 감각이 필연적으로 부드러운 것 위에도 놓여져서 감각하기에 따라서 같은 것이 부드럽기도 하고 딱딱하기도 하다고 혼에 전달하게(parangelloi) 되는데, 그래서 이때 혼은 이 감각이 도대체 어떤 것을 딱딱하다고 표시하는(sēmainei) 것인지 의문에 빠질(aporein) 수 밖에 없겠지?
- 9) 그러므로 혼은 이 때 당연히 헤아림(logismos)과 사유를 먼저 불러 들여서 전해 온 것이 각각 하나인지 둘인지 살피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만약 그것들이 둘로 나타나한다면(phainetai) 각각은 하나이며 별개의 것(heteron)으로 나타나겠지? 따라서 각각은 하나이고 합하여 둘이라면 사유는 그 둘을 구별된 것(kechōrismena)으로 파악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구별되지 않은(achorista) 것이라면 그것들을 둘이 아니라 하나로 여겼을 것이기 때문이다.
- 10) 한편 우리는 시각도 큼과 작음을 보지만 그것을 구별된 것으로 본 것이 아니라 섞여 있는 것으로(synkechymenon ti) 보았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은가?

이상의 논증에서 우선 플라톤이 인식 주관의 조건을 혼, 감각, 사유로 각각 구별해 놓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혼은 문제의 대상인 손가락을 살펴 보는 주체가 되고 있고 감각과 사유는 혼에 속한 인식 능력으로서 기능상 서로 구별되고 있다. 혼이 사물을 불러들여 어떤 것을 고찰할 때는 혼의 시선은 실재(to on)를 향해서 이끌려지게 되지만 감각만으로 고찰할 때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플라톤의 생각이다. 이 두 경우를 구별 짓는 계기는 혼이 관찰하는 대상이 감각에 의해서 충분히 식별되고 되지 않음의 차이에 있다. 즉 감각만으로 관찰의 대상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때는 혼은 사유를 활용하지 않지만 감각이 그것을 분명히 드러내 주지 못할 때는 사유를 활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전자에 해당되는 것은 ‘손가락’이라는 실명사이고 후자에는 크고 작음, 굵고 가늘, 부드럽고 딱딱함 등 관계나 속성을 나타내는 술어들로 언급되고 있다. 그런데 후자의 술어들이 지시하는 성질을 갖는 대상이 감각에 의해서 분명히 식별되지 않는 까닭은 그 대상이 사태의 변화(다른 것과의 비교)를 겪음에 따라서 대립적인 성질을 함께(hama)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처럼 대립적인 성질들이 같은 대상으로부터 함께 감각에 주어질 때 감각은 그 대립적인 성질들 각각이 표시하는(sēmainei) 대상을 구별해서 혼에게 전해 주지(parangellei) 못하고 섞여 있는 것(synkechymenon ti)으로 전해 주기 때문에 혼은 혼동을 겪게되고 결국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의문과 함께 생각(사유)을 해 보게 된다는 말이 되겠다. 이 논증은 우리에게 논의상 몇 가지 의미있는 점들을 제공해 주는 한편, 핵심적인 내용은 이미

살펴 본 대립적 성격에 관한 논증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대립적 성격에 주목하여 앞의 논증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손가락’이라는 술어가 지시하는 사물은 대립적인 성질을 나타내지 않으므로 사유의 대상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반면, 큼, ‘작음’, ‘딱딱함’, ‘무거움’ 등 비교나 관계의 술어들이 지시하는 사물은 대립적 성질을 나타내므로 사유의 대상으로 생각이 미치게 된다는 말이 될 수 있겠는데, 여기서 사유의 대상은 곧 이데아를 뜻하는 것이므로 손가락이라는 실명사는 이데아를 지시 대상으로 갖지 않지만 비교나 관계의 술어들은 이데아를 지시 대상으로 갖는다고 이해하게 되면, 이것은 플라톤이 실명사와 같은 술어들에 대해서는 이데아를 상정하지 않았다는 앞의 해석을 그대로 대변해 주는 전거라고 단언해도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이런 이해는 텍스트의 내용을 하나하나 주의깊게 검토해 보면 해석자의 생각을 단지 전거에 적용해서 얻어낸 피상적인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손가락의 예에서 말하고 있는 대립적 성질은 술어 자체의 성격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유와 감각이라는 인식 주관의 조건과 그에 상응하는 대상의 성격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이 점은 특히 감각적인 관찰로부터 사유의 각성을 위한 계기로서 제기되는 물음의 성격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 따라서 손가락의 예에서 손가락이 손가락과 반대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6)은 손가락이라는 사물이 갖는 본질적인 성질인 ‘손가락임’의 성질은 플라톤이 말하는 감각적인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된다. 뒤집어 말하면 감각적 성질로서의 손가락(가늘고, 굵고, 희고, 부드럽고 등)은 얼마든지 손가락 아닌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해석을 내림에 있어서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보이는 문제는 1) 2) 6)에서 말하는 손가락이라는 것이 ‘감각에 의해서 충분히 식별된다’는 사실이겠는데, 물론 이것은 손가락이라는 個物이 손가락과 반대되는(손가락 아닌) 성질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점과 연관된다. 만약 손가락이 갖는 본질적인 성질인 손가락임의 성질을 감각적 성질이 아닌 것으로 보아 감각에 의해서는 알려질 수 없다고 한다면 ‘감각에 의해서 충분히 식별된다’는 말은 여기에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충분히 식별된다는 것은 손가락임의 성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이라는 個物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또 그것이 손가락이 무엇인가를 아는 지식을 주장하는 말로 간주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일단 문제의 심각성을 완화시킬 수 있다. 손가락이라는 個物과 손가락임의 성질을 나누어 보는 근거는 크고 작음, 가늘고 굵음 등의 술어들과 관련하여 감각적 관찰이 대립적 성격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물음의 성격에 있다. 즉 플라톤이 묻고 있는 것은 큰 것 혹은 딱딱한 것이 무엇인가 아니고 큼 또는 딱딱함이 무엇인가라는 것이다.<sup>20)</sup> 이는 고정 불변의 지시 대상을 해당 술어의 의미 내지는 진리치로서 요구하는 물음인 한편 플라톤은 이런 술어들의 지시 대상으로서 감각이 보는 ‘섞여 있는 것’(synkechy menon ti)이라고 말하므로써(10) 역시 대상과 결부시키고 있다. 큼이나 작음을 표시해 주는 감각적 대상은 순수하고 구별된 사유의 대상과는 달리 섞여 있는 것이어서 감각이라는 인식능력과 상응하여,

주 20) “ti to kouphon kai bary, ei to te bary kouphon kai to kouphon bary sēmainei;”  
회랍어 중성 정관사 ‘to’는 특정한 사물을 뜻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속성을 뜻할 수도 있다.

대립적인 성격을 동시에 드러낸다는 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손가락이라는 個物 여러가지 감각적 성질들의 복합체이므로 다른 술어들과 마찬가지로 ‘손가락’이라는 술어의 고정된 진리치로서 손가락임의 성질을 구별해서 생각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러면 손가락이라는 개물이 충분히 식별된다는 것은 손가락임에 대한 앎과 별도로 어떻게 가능한가하는 점이 문제가 되겠는데, 이것은 사물이 갖는 여러가지 속성들과 앎의 종류에 대한 플라톤의 생각으로부터 유추해 볼 수 있다. 어떤 사물이 그 사물임으로 해서 갖는 성질 즉 사물의 본질적인 성질은 그 사물이 그것인 한에서는 그것 아닌 다른(반대되는)성질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과 그런 것에 대해서 올바른 의견(alēthē doxa)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지식을 갖지 않더라도 그것을 충분히 식별해 낼 수 있다는 플라톤의 생각을 알려 주는 전거가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사물이 갖는 성질 중 그 사물이 그것인 한에서 대립적인 성질을 나타내지 않는 성질 즉 본질적인 성질과 사태의 변화에 따라 대립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성질 즉 우연적 성질을 구별해서 말하고 있는 곳은 「파이돈」 102c~106a에서 볼 수 있다. 거기서 플라톤은 ‘심미아스가 소크라테스보다 크다’라는 경우와 ‘불은 뜨겁다’나 ‘눈(雪)은 차갑다’의 경우를 구별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심미아스가 소크라테스보다 큰 것은 심미아스가 심미아스임으로 해서(to simmian einai) 큰 것이 아니고 그가 우연히 갖게된 크기에 의해서(to megethei tyngchanei echon, 102c)이며 심미아스가 파이돈 보다 작다고 할 때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큼이나 작음 자체는 동시에 작거나 크려고 하지 않을 것이므로 심미아스 안에 있는 큼이나 작음은 상대편이 접근할 때 심미아스로부터 피해서 물러나거나 소멸해 버린다고 말한다. 물론 이 때 심미아스 자신이 물러나거나 사라지는 일은 없다. 열(熱)과 불(火) 그리고 냉(冷)과 눈(雪)은 각각 다른 어떤 것(heteron ti)이지만, 눈이 눈이면서(chiona ousan) 그것이 열을 받아들이고서 여전히 그전과 같은 것일 수는 없다. 즉 열을 가진 눈일 수는 없다. 그래서 열이 접근해 오면 눈은 물러나거나 사라져 버리고 말 것이다. 이것은 불(火)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몇 가지 경우에 있어서 형상(eidos) 자체만이 자신의 이름을 영구적으로 가질만한 것이 아니고 형상이 아닌 다른 것도 그것이 있는 한에서는 언제나 그 형상의 양상(morphē)을 가진다는 것이다. 플라톤의 이런 생각은 손가락의 예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따라서 손가락이 손가락인한 손가락 아닌 다른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우연적인 성질이든 본질적인 성질이든 그런 성질을 갖는 사물들에 대해서 교육이나 경험을 통해서 올바른 의견(alēthē doxa)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런 성질 자체가 무엇인가를 고정 불변의 것으로 표시하지는 못하더라도 충분히 그런 사물들을 식별해 낼 수는 있다는 것은 굳이 플라톤의 입을 빌어(「국가」 401e-402a) 말하지 않더라도 수긍할 수 있는 점이다. 즉 우리는 플라톤이 묻고 있는 큼이나 작음 또는 무거움이나 가벼움의 고정된 진리치를 표시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한정된 범위 내에서는 큰 것, 작은 것, 무거운 것, 가벼운 것을 구별해 내는데 실패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손가락이라는 개물이 감각에 의해서 충분히 식별된다는 말은 손가락에 대한 지식을 주장하는 말로 간주되지 않더라도 이해가능하며 동시에 손가락이라는 개물에 대해서 큼이나 작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식의 대상이 되는 손가락임의 성질을 상정 못할 이유도 없다. 손가락이라는 개물에 대해서 손가락임의 성질은 개

물로서의 큰 것에 대해서 큼의 성질과 마찬가지로 사유의 대상이며 따라서 이데아라는 존재론적인 가정을 동등하게 부여 받을 수 있다. 한편 개물로서의 손가락이나 큰 것은 또한 감각적 성질의 복합체(섞인 것)이므로 감각적 인식에만 의존할 경우 큰 것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가 있다.<sup>21)</sup> 그리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개물로서의 손가락이나 큰 것, 작은 것을 식별할 수 있고 없고는 지식(epistēmē)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므로 여기에 준하여 이데아의 설정 여부가 결정된다고는 볼 수 없다. 술어의 성격에 따라 이데아의 범위를 한정하려는 해석은 바로 이런 우리의 상식적인 이해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며 플라톤이 요구하는 지식의 성격을 간과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손가락의 예는 텍스트의 앞 뒤 내용이 말해 주듯이 사유의 대상인 이데아의 설정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감각적인 관찰로부터 사고 각성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효과적인 학습의 대상과 방법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사고 각성의 계기는 관찰 대상의 성격 즉 손가락의 길이가 다르다거나 부드럽고 딱딱함 등 상반되는 성격이 동시에 감각에 주어지느냐 아니냐에 우선 좌우된다. 이런 점에서 사태의 변화에 따라 쉽게 다른 성질을 나타내는 관계 술어와 같은 우연적인 속성의 술어들과 관련한 감각적 관찰이 효과적인 것이다. 여기에는 관계 술어를 위시하여 고정적인 감각적 지시물을 갖는다고 볼 수 없는 미적인 술어나 도덕적 술어들이 해당될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비교나 관계의 술어들의 경우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은 상황에 따라서 그런 속성들을 가진 개물을 감각에 의해서 충분히 식별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이점에서 관계 술어를 미적 술어나 도덕적 술어와 동일시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따라서 사유를 일깨우는 계기는 감각적인 사물이 아닌 순수한(eilikrīmōs) 대상의 지시를 요구하는 인식론적인 물음과 함께 주어질 수가 있다. 인용문 8)에서 ‘혼이 의문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anangkaion en toioutois au tēn psychēn aporein)는 말은 술어의 성격상 그럴 수 밖에 없다라기 보다는 그런 인식론적인 물음의 전제를 뜻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물론 이것은 감각이라는 인식능력상의 조건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왜냐하면 만약 크고 작음과 같은 성질이 처음부터 감각에 분명히 주어지지 않는다면 감각적 관찰은 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상반되는 감각이 분명히 함께(hama) 주어진 다음 그런 성질들이 하나의 감각적인 대상으로 표시(sēmeinei)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하나의 대상이 전제되어 있다) 비로소 의문(aporein)의 여지가 주어지기<sup>22)</sup>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실명사나 미적 도덕적 술어들과는 달리 ‘무거움’ ‘딱딱함’ ‘부드러움’ 등의 술어가 사유의 각성에 유효한 것은 물론이다. 이제 관계 술어의 사용에 대한 플라톤의 생각이 분명해 지는 것 같다. 그것은 손가락의 예가 말해 주는 바와 마찬가지로 사유의 각성 즉 사유의 대상인 이데아의 자각과 관련이 있다. 미적 술어나 도덕적 술어들은 감각

주 21) 「국가」X 601c-603d에서 플라톤은 모방자가 혼의 이성적 부분(logistikon)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열등한 부분인 감각에만 의존하여 사람과 사물들을 관찰하기 때문에 그것들의 진상(to on)은 보지 못하고 가상(phainomenon)만을 가지며, 그래서 그들은 같은 사물에 대해서 상반되는 의견을 함께 자신 속에 가지게 된다(enantias echen en hautō doxas hama peri tōn autōn)고 말한다.

22) 관계 술어의 성격을 염두에 두고 큰 것 작은 것으로 구별하면 의문스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큼, 작음이라는 순수한 하나의 지시 대상을 가정하면 반드시 의문을 유도해 낼 수 있다. 따라서 감각이 ‘섞인 것’을 본다는(10) 말은 ‘순수한’과 상응하는 것으로 감각적 대상의 성격에 대한 플라톤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말로 여겨진다.

적인 지시물을 의미체로서 갖지 않는다는 것은 관계 술어와 마찬가지로 그런 만큼 그것들은 하나의 대상에 관한 감각적 관찰에서 분명한 대립적 성질이 함께 주어지기가 어렵겠지만 관계 술어는 관찰자에게 이론의 여지없이 대립적 성격이 함께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기 대화편에서 주종을 이루는 미적 도덕적 술어들은 플라톤의 관심을 반영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관심의 반영이라고는 보기 곤란한 비교나 관계 술어의 빈번한 등장은 중기에서 후기에 이르는 시대적 과정으로 볼 때 이데아의 확보라는 플라톤의 이면적 의도와 관련 지을 수 있을 것이다.

## VI. 맺는 말

의견의 대상이 나타내는 대립적 성격은 인식 능력인 감각과 이에 상응하는 감각적 대상의 성격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간단한 결론에 따르면, 아름다운 것이 추한 것으로 나타난다거나 큰 것이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모두 감각적인 파악을 말한다.<sup>23)</sup> 그리고 그것이 언제나 반드시 그런 것은 감각과 그에 상응하는 감각적 대상의 불완전한 성격 때문이다.<sup>24)</sup> 한편 감각에만 의존할 경우 모든 술어에 대해서 사물은 언제든지 대립적인 성격을 나타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사물이 전적으로 감각적인 성질만을 드러내는 것인가는 고려해 볼 문제다. 손가락의 예에서처럼 사물들은 감각적 성질과 함께 변하지 않는 비감각적인 성질도 함께 갖는다고 봐야한다. 만약 사물이 전적으로 감각적 성질만을 드러낸다면 각각의 사물은 구별되게 존재하지는 못할 것이다. 다른 사물과 구별을 지어 주는 이 비감각적 성질은 곧 사유의 대상으로서 그것을 아는 것은 그 사물이 무엇임을 아는 것이된다. 플라톤은 이를 지식을 성립시키는 쉼이지 않은 순수한 대상으로 가정하며 여기에 실재성(ōn)을 부여한다. 즉 지식(epistēmē)은 사물을 구별된 존재로서 성립시켜주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인 반면에 의견(doxa)은 쉼이고 변화하는 감각적 성질에 관련되며 이것은 사물을 구별된 존재로서 드러내지 못하는 요소이다. 지식과 의견의 이런 성격을 두고 볼 때 플라톤이 말하는 ‘실재의 정도’(degree of reality)는 그렇게 이해에 벗어나는 말은 아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인식 내지 존재론적 견해의 배경이 되는 탐구 방법의 성격과 이에 딸린 기본 개념들을 천착해 보는 일이 되겠다.

주 23) 개물이 감각을 통해서 우리의 인식 내용으로 주어지는 상태를 보통 ‘나타난다’ ‘보인다’ 라는 말로 플라톤은 표현한다. 대화편에서 이 표현은 우리들이 어떤 것을 어떠한다고 생각할 때의 인식 태도와 같은 일반적인 뜻으로도 물론 사용되지만 지식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견(doxa)에 해당하는 인식 상태를 표현하는 말로서 감각적인 대상에 한정해서 쓰여진다. 감각적인 대상이 어떤 사람(S)에게 어떠한(F) 것으로 보였다(Phainetai)고 할 때 S는 감각에 의존하는 한 술어 F에 대해서 감각적인 인상을 갖는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24) 플라톤의 말에 따르면 감각은 본래(physei) 육체(sōma)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도 못하며(mē akribēs) 확실하지도 못하며(mēde saphēs) 혼에게 어떤 진리(aletheia) 제공해 주지 못하는 열등한(phaulon) 부분이며, 감각적 대상 역시 생성 소멸하며 쉼여 있으며 분해되고 결코 동일하게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국가」602d, 「파이돈」65a, 80b.

참 고 문 헌

1. 원전, 주석서 및 번역서

- D. Kurz, ed. *Platon, Werke in acht bänden*, III, IV, V, Griechisch und Deutsch, Deutsche Übersetzung von F. Schleiermacher, Darmstadt, 1974.
- J. Adam, *The Republic of Plato, Text, Notes and Appendices* 2 Vols. 2nd ed., Cambridge, 1969.
- E. Hamilton & H. Cairns, ed. *Plato: The Collected Dialogues Including the Letters*, Princeton U.P., 1973.

2. 참고서 및 논문

- J. Annas, *An Introduction to Plato's Republic*, Oxford U.P., 1981.
- I.M. Crombie, *An Examination of Plato's Doctrines*, Vol. I, II, London: R&K, 1971.
- F.M. Cornford, *Plato's Theory of Knowledge*, London: K&P, 1935.
- N. Gulley, *Plato's Theory of Knowledge*, London: Methuen & Co. Ltd., 1973.
- W.D. Ross, *Plato's Theory of Ideas*, Oxford: Clarendon Press, 1951.
- W.K.C. Guthrie, *A History of Greek Philosophy*, Vol. IV.
- J. Hintikka, "Knowledge and Its Objects in Plato," in *Patterns in Plato's thought*, ed. by J.M.E. Moravcsik, D. Reidel Publishing Co., 1973.
- G. Santas, "Hintikka on Knowledge and Its Objects in Plato," in *Patterns in Plato's thought*, ed. by J.M.E. Moravcsik, D. Reidel Publishing Co., 1973.
- T.H. Irwin, "Plato's Heracleiteanism," in *the Philosophical Quarterly*, Vol. 27, No. 106, January 1977.
- R. Bolton, *Plato's Distinction between Being and Becoming*, in *the Review of Metaphysics*, Vol. XXIX, 1975.



- J.A. Brentlinger, "Particulars in Plato's Middle Dialogues," in *Archiv für Griechische der Philosophie*, Bd. 54, 1972.
- J. Gosling, Republic V: "ta polla kala etc." in *Phronesis*, 1960.  
    , "Doxa and Dynamis in Plato's Republic," in *Phronesis*, Vol. XIII, 1968.
- G. Fine, "Knowledge and Belief in Republic V," in *Archiv für Griechische der Philosophie*, Bd. 60, 1978.
- F.C. White, J. Gosling on ta polla kala," in *Phronesis*, Vol. XXIII, 1978.
- G. Vlastos, "Degree of Reality in Plato," in *New Essays on Plato and Aristotle*, ed. by R. Bambrough, Routledge & Kegan Paul, Ltd., 1965.
- R.E. Allen, "The Argument from Opposites in Republic V," in *Essays in Ancient Greek Philosophy*, ed. by J.P. Anton & G.L. Kustas,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72.  
    , "Participation and Predication in Plato's Middle Dialogues," in *Platonic Studies*, ed. by G. Vlastos, Princeton, U.P., 1981.